

- 이에 따라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.

* 「신용협동조합법」(§83조의3①)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

2 주요 내용

-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(§16조의8 신설)
 -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,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(대출과 어음할인)의 각각 30% 이하로 제한하고,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% 이하로 제한
- 유동성 비율은 100%이상 유지하되,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(§4조의3, §12조 개정)
 - (원칙)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%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
 - (예외)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조합은 90%이상,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%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

3 향후 일정

-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
 - 다만,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,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(~'25.12.28)까지 90%를 적용하고, 그 이후 100%로 순차 적용됩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